

노인의 생산적 활동이 노년초월에 미치는 영향: 자아통합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 현 숙¹⁾

황 혜 원²⁾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생산적 활동이 자아통합감과 노년초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생산적 활동과 노년초월의 관계에서 자아통합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 청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373부(남: 132명, 여: 241명)를 분석하였다. 기초적 자료분석을 위해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고, 생산적 활동이 자아통합감과 노년초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학력이 높을수록, 독거가 아닌 경우,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할수록, 경제상태가 높을수록 자아통합감이 높게 나타났고, 일반적 특성 중 노년초월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생산적 활동 중 경제활동 유무는 노년초월과 자아통합감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으나 사회참여활동은 자아통합감과 노년초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생산적 활동 중 사회참여활동과 노년초월과의 관계에서 자아통합감은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노년초월이 자아통합감과 연관성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노년기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으로써 그 중요성을 인식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바람직한 노후를 위한 발달과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실천현장과 정책의 역할이 모색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생산적 활동, 자아통합감, 노년초월, 경제활동, 사회참여활동

1)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2) 교신저자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mail: hwang@cju.ac.kr)

I. 서 론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의 대응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노인인구의 증가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노인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위치를 새로이 정립해야하는 필요성과 인식전환을 요구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가 세계유래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국가의 성장기반과 향후 지속적 복지 지향 가능성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질 만큼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노년기의 노화는 건강이나 신체기능의 상실로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로 인식되면서 노화에 적응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였다. 그러나 점차 긴 노년기와 더불어 노년초월이론이나 Erikson과 Erikson의 9단계이론 같은 긍정적 발달로의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등장(윤민석, 2012a)함으로써 노년기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년기의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년기의 특성과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현대에는 활동적 노년을 맞이하는 노인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사회 복지실천현장도 건강한 노인의 활동적 노화나 생산적 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활동적 노화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Havighurst 등이 주장한 활동이론에서는 사회적 활동 참여정도가 노인의 생활만족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사회적 활동 참여정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만족감과 생활만족수준이 높다고 하였다(이은희, 2009). 따라서 노인의 만족스런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가능한 사회활동을 지속해야하며, 고령에도 활동에 참여하여 퇴직 후 상실된 역할

에 대한 대치 활동이 필요함이 강조되고 있다. 여러 사회활동 중 생산적 활동은 사회에 생산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으로 경제적 활동과 비경제적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박정호, 2012)으로 지난 2002년 UN에서 ‘마드리드노령화 국제행동계획’을 채택하여 더욱 주목받는 개념이 되었다. ‘마드리드노령화 국제행동계획’에서는 인구의 고령화를 인류의 도전이자 기회로 고려할 것을 제안하면서 노인들을 주요한 자원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각국 정부에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제안하며 노인의 사회참여와 고용증진 등 노인의 생산적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2004년에 77.9세였던 것이 2014년에는 82.2세로 10년만에 4.3세가 증가하였고(보건복지부, 2016), 2020년에는 83.2세, 2030년에는 85.2세로 지속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계(통계청, 2017)되고 있어 길어진 노년기의 생산적 활동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생산적 활동에 대한 구성은 학자마다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강신옥(2009)은 200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생산적 활동으로 정의하였고, 김진욱(2006)은 생산적 활동을 친족지지활동, 지역사회참여활동, 취업활동으로 구분하였으며, 윤순덕과 한경혜(2004)의 연구에서는 경제활동, 가사활동, 자녀원조활동, 친척원조활동, 이웃 및 친구원조활동을 포함하고 있고, 이해자와 전동일(2011)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활동과 손자녀양육활동, 사회참여활동을 포함한 광범위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그 해석이나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노인의 생산적

활동범주와 관련하여 초기에는 노인의 유급노동활동에 국한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비공식적 도움이나 무급의 자원봉사 등 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를 하는 활동까지 포함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박정호, 2012). 선행연구들에서는 다양한 생산적 활동에 대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통용될 수 있는 개념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들의 활동 환경과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경제활동과 사회참여활동(단체활동, 학습활동, 자원봉사활동)을 생산적 활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생산적 활동에 대한 긍정적 효과들은 많은 연구에서 성공적 노화, 생활만족, 심리적 만족감을 향상시키고 자존감, 우울, 자살생각 등 심리적 측면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김동배, 박은영, 2007; 박정호, 2012; 성혜영, 조희선, 2006; 윤순덕, 한경혜, 2004). 특히 김민희와 이주일(2017)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활동참여의 수준이 높을수록 Erikson이 언급한 노년기의 심리발달 특성인 자아통합감이 높게 나타나 노년기의 활동이 자아통합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자아통합감이란 노년기의 발달특성으로 8단계에 해당되는데 자신의 과거를 수용하고 현재 생활에 만족해하며, 죽음에 대한 공포가 나타나지 않는 안녕상태를 말한다(Erikson, 1982). 자아통합감은 노인이 자신이 살아온 생을 잘 마무리 하고 다가올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인생의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최수현, 김혜리, 2016). 따라서 자아통합감은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

는 필수요소이며 성공적 노년기의 중요 지표로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김향숙과 한정란(2016)의 연구에서는 노인교육참여 집단이 비참여집단에 비해 자아통합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생활수준, 노인 교육 참여여부, 생성감 등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김민희와 이주일(2017)의 연구에서는 은퇴한 55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년기 활동참여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과 자아통합감이 높게 나타났고 활동참여가 삶의 의미를 매개하여 자아통합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자아통합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정현정과 윤숙희(2015)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활동이 높을수록 자아통합감이 높으며, 학력, 사회적 활동의 만족도가 자아통합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나타났고, 고독감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김영신과 편명희(2016)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종교가 개신교일수록, 퇴직 전 직업이 공무원일수록, 유배우자일수록, 부부동거가족일수록, 생활수준과 건강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원봉사참여자일수록 자아통합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노년기는 전 생애 과정동안의 부정적 발달요소들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이는 새로운 성장으로 이끌 수도 있으므로 노년기 후반에 8단계를 넘어서는 초월의 발달이 가능하다(안정신, 2015). Erikson의 8단계를 넘어서 노년기 신체와 능력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달하는 노인들에 대해 연구하는 노년학자들이

“초월”이라는 용어로 9단계의 발달특성을 설명하였다. Tornstam(1994)은 노년초월은 중년기 이후에 노년기에 접어든 개인이 “인생의 전반적인 시각을 물질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에서보다 우주적이고 초월적인 시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노년초월은 많은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자기초월의 자발적 과정으로서 사회적으로 정의되는 자기에 덜 의존하게 되고, 내면성이 증가하고 이전 세대와 미래 세대와의 연결감이 더 커지는 것이다(윤민석, 2012b). 노년의 수용적 태도와 긍정적인 심리 특성으로서의 노년초월은 길어진 노년기의 성공적 노후의 주요 요인으로서 최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년초월에 대한 연구가 일부 학술지를 통해 소개되고는 있으나 아직 미흡한 초기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앞으로 노년초월과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윤민석, 2012a). 노년초월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adensten(2005)은 높은 수준의 노년초월은 높은 수준의 생활만족도와 사회활동에 대한 만족과 관련이 있지만 사회활동에 대한 정도는 생활만족도 보다는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한다. 국내외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정기적인 사회활동이 노년초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이예진, 2016; Wang et al., 2015), 또한 노년초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지혜와 자아통합감(안정신, 2015), 연령, 일상 생활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건강만족도, 혼인 상태(윤민석, 2012b), 교육수준(김순이, 2015; 김은자, 정혜정, 신유순, 2016; 윤민석, 2012b), 성별, 경제적 상태(Hsieh & Wang, 2008; 윤민

석, 2012b에서 재인용), 가족형태와 고독감(김순이, 2015), 경제인식과 사회활동횟수, 종교, 정서적 단절, 건강상태인식, 자기입장, 교육수준(김은자 등, 2016)등이 있다. 특히 김은자 등(2016)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인식과 사회활동횟수가 노년초월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는 은퇴이후의 노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위해 사회활동이 중요한 요인임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 진행된 이예진(2016)의 연구에서는 Miller(1978)의 역할을 활용해 종교모임, 여가활동, 교육, 친목활동, 자원봉사활동, 정당 및 시민단체활동 등 개인적인 활동을 제외한 사회활동의 참여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노년초월과의 관계를 측정하고 결과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신(2015)의 연구에서는 초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조사한 결과 나이, 주관적 건강, ADL, IADL, 주관적 경제, 종교유무 등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자아통합감과 지혜가 초월변량의 51%를 설명하며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어 8단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업인 자아통합감이 9단계의 발달과업인 노년초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안정신과 박규리(2016)의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대표적 생활사건인 상실경험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아통합감이 초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사회활동 및 경제인식과 관련이 깊은 생산적 활동과 자아통합감은 노년초월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생산적 활동과 자아통합감이 노년초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런 노인의 생산적 활동과 자아통합감의 관계나 생산적 활동이 노인들의 노년초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노년초월이론도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단계의 연구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노인의 욕구에 따른 실천적 개입의 근거가 마련되고, 노인의 긍정적 인식으로의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노화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들인 생산적 활동과 노년초월, 자아통합감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생산적 활동과 자아통합감, 노년초월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함의와 더불어 노년초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노년초월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생산적 활동과 에릭슨의 발달단계 중 9단계인 노년초월의 관계에서 8단계의 특성개념인 자아통합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봄으로서 노년기에도 이전단계의 특성이 이후발달단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여 우리나라의 노인에 관한 풍부한 이론적 자료를 얻고자 한다.

이에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만족스런 삶을 위한 중요요소인 생산적 활동과 자아통합감, 노년초월에 관해 살펴보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자아통합감과 노년초월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생산적 활동은 노년기의 주요 발달 과업인 자아통합감과 노년초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자아통합감이 생산적 활동과 노년초월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노인의 생산적 활동은 자아통합감과 노년초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노인의 생산적 활동과 노년초월의 관계에서 자아통합감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생산적 활동이 자아통합감과 노년초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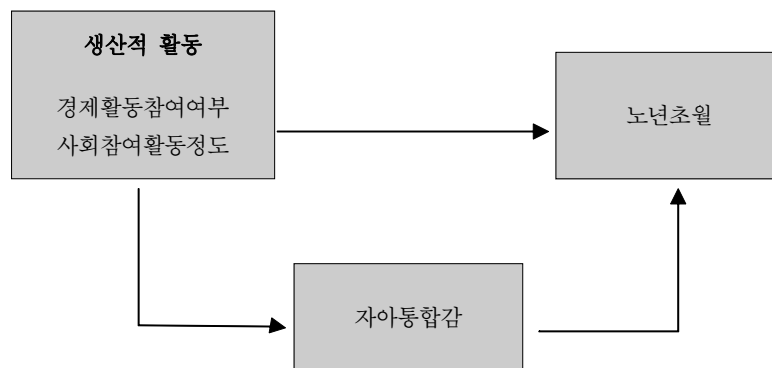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보고 그 관계에서 자아통합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2. 분석자료 및 조사대상

본 연구는 농촌과 도시지역의 복합적 특성을 지닌 청주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의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병의원, 경로당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시니어클럽 2개소, 노인복지관 1개소, 경로당이용노인과 공식 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 등을 눈덩이 표집하여 2017년 8월부터 9월까지 약 2개월간 총 47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사회복지사 4명, 병원관계자 1명, 부녀회장 1명, 노인1명에게 설문지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스스로 설문에 응답할 수 있는 노인은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토록 하고, 응답이 어려운 분들은 사회복지사 등의 도움을 받아 기재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385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무응답이 많은 12부를 제외하고 총 373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측정도구

생산적 활동

본 연구에서의 독립변수는 생산적 활동이며,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인 사회참여활동의 2개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적 활동은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 외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고, 사회참여활동정도는 1~7점으로 구성하

여 조사하였다. 활동정도는 친목단체, 종교단체, 문화단체, 스포츠레저단체, 시민사회단체, 이익단체, 학습단체, 자원봉사단체의 참여정도를 모두 합산한 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를 통해 노년초월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 변수들로, 성별, 연령, 종교, 건강, 경제, 학력, 독거유무 등 일반적 특성도 포함하여 영향정도를 살펴보았다.

자아통합감

본 연구에서는 자아통합감 척도를 최수현과 김혜리(2016)가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어지는 척도들이 과거수용 외에 현재 삶의 만족요인을 포함하고 있어 학력이나, 경제 건강, 가족관계 등 삶의 외적 조건이 낮으면 자아통합도 낮게 나타나는 현상에 따라 현재 삶의 만족 등의 문항을 배제하여 삶의 외적 조건이 아닌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한 과거수용을 했느냐에 따른 자아통합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6문항, '과거수용' 4문항으로 구성되며 총 10개 문항으로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통합감이 높은 것을 나타내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75이었다.

노년초월

본 연구에 사용된 노년초월 척도는 Erikson의 9단계 이론에 근접하기 위해 노년초월척도를 한국적 특성에 맞게 타당화한 안정신(201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Erikson 이론의 초월에 접근하기 위한 Brown과 Lowis(2003)의 10문항 척도를 타문화 검사 번안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2문항을 제외하고 총 8문항으로 구성하고 있다. 인생의 신비 3문항, 삶과 죽음 2문항, 물리적 세계초월 3문항으로 총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점수가 높을수록 노년초월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각 문항의 응답은 4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68이었다.

4. 분석방법

분석방법은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생산적 활동 참여현황, 자아통합감, 노년초월의 실태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치를 산출하였고, 척도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확인을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t -test, ANOVA를 실시하여 일반적 특성과 자아통합감과 노년초월의 차이를 살펴보았고, 생산적 활동이 노년초월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고 Tukey HSD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Sobel test를 실시하여 자아통합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 유의성을 파악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및 주요변수의 특성

본 연구의 조사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분석대상 노인들은 총 373명으로 남성이 132명으로 35.4%, 여성이 241명으

로 64.5%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은 70-74세가 103명(27.6%)으로 가장 많았으며, 75-80세가 102명(27.4%), 65-69세가 94명(25.2%), 60-64세와 80세 이상이 각각 37명(9.9%)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유무는 종교있음이 288명(77.4%), 종교없음이 84명(22.6%)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초등학교졸업이 107명(28.8), 무학이 18명(4.8%)로 초등학교 졸업이하가 33.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고등학교졸업이 105명(28.2%), 중졸이 80명(21.5%), 전문대졸이상이 62명(16.7%)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결혼이 258명(69.2%)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별이 95명(25.5%), 이혼이 9명(2.4%), 미혼이 1명(0.3%)으로 응답하였다. 독거여부에 관한 질문에 288명(77.4%)이 한명이상의 가족이나 친지 또는 기타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84명(22.6%)은 독거중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건강상태를 '보통'이라고 응답한 노인은 205명(55.0%)으로 가장 많았고, 122명(32.7%)은 '좋은 편'이거나 '매우 좋은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46명(12.3%)은 '나쁨' 또는 '매우 나쁨'이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186명(45.0%)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태는 보통이 249(66.9%)로 가장 많았고, '나쁨'이거나 '매우 나쁨'이 69명(18.5%), '좋은 편'이거나 '매우 좋은 편'이 54명(14.5%)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생산적 활동 영역 중 경제활동 참여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61.9%가 노인일자리사업을 포함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38.1%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친목단체, 종교, 문화, 스포츠레저, 시민사회단체, 이익단체,

표 1.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i>n</i> = 373)	남	132	35.4	독거유무 (<i>n</i> = 372)	독거	84	22.6
	여	241	64.6		비독거	288	77.4
연령 (<i>n</i> = 373)	60-64세	37	9.9	건강상태 (<i>n</i> = 373)	매우좋은편	22	5.9
	65-69세	94	25.2		좋은편	100	26.8
	70-74세	103	27.6		보통	205	55.0
	75-80세	102	27.4		나쁨	38	10.2
	80세이상	37	9.9		매우나쁨	8	2.1
종교유무 (<i>n</i> = 372)	종교있음	288	77.4	만성질환 유무 (<i>n</i> = 365)	유	186	45.0
	종교없음	84	22.6		무	179	43.3
학력 (<i>n</i> = 372)	무학	18	4.8	경제상태 (<i>n</i> = 372)	매우좋은	4	1.1
	초졸	107	28.8		좋은편	50	13.4
	중졸	80	21.5		보통	249	66.9
	고졸	105	28.2		나쁨	54	14.5
	전문대졸	14	3.8		매우나쁨	15	4.0
	대졸이상	48	12.9				
혼인상태 (<i>n</i> = 372)	미혼	1	0.3	경제활동참여 여부 (<i>n</i> = 373)	경제활동참여	231	61.9
	결혼	258	69.2		경제활동미참여	142	38.1
	이혼	9	2.4				
	사별	95	25.5				
	별거	10	2.7				

학습단체, 자원봉사단체 등 8개 분야로 구성된 사회참여활동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이 15.14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자아통합감 및 노년초월의 차이

조사대상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통합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학력($t = 4.20, p < .01$), 혼인상태($t = 6.37, p < .01$), 독거여부($t = -2.76, p < .01$), 건강상

태($t = 3.66, p < .05$), 경제상태($t = 13.03, p < .001$)에 따라 자아통합감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의 집단보다 전문대졸 이상의 집단의 자아통합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혼인상태에서는 결혼한 집단이 미혼/이혼/별거, 사별집단보다 자아통합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독거여부는 비독거가 독거인 경우보다 자아통합감 수준이 높았으며,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 나쁜 편보다 자아통합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경제상태는 경제상태가 좋은 편, 보통, 나쁜 편순으로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통합감과 노년초월의 차이

(N = 373)

구분	자아통합감에 대한 차이						노년초월에 대한 차이				
		<i>n</i>	<i>M</i>	<i>SD</i>	<i>f/t</i>	<i>p</i>	<i>n</i>	<i>M</i>	<i>SD</i>	<i>f/t</i>	<i>p</i>
성별	남자	132	37.80	4.53	.51	.613	132	21.70	2.43	-.16	.874
	여자	240	37.55	4.77			240	21.75	3.19		
연령	60-69세	131	38.02	4.88	.75	.475	131	21.69	2.87	.11	.895
	70-79세	204	37.38	4.81			205	21.78	2.83		
	80세이상	37	37.68	3.03			36	21.56	2.75		
종교유무	종교있음	287	37.40	4.69	-1.84	.067	287	21.82	2.80	1.08	.282
	종교없음	84	38.46	4.63			84	21.44	2.95		
학력	무학	18	36.33 ^a	5.04	4.20	.002**	18	21.00	4.34	.86	.488
	초졸	106	36.81 ^a	4.37			106	21.67	2.74		
	중졸	80	37.34 ^a	4.75			80	21.45	3.30		
	고졸	105	37.75 ^{ab}	4.57			105	22.02	2.62		
	전문대졸이상	62	39.63 ^b	4.76			62	21.94	2.09		
혼인상태	미혼/이혼/별거	20	35.40 ^a	3.55	6.37	.002**	20	22.15	1.53	.23	.791
	결혼	258	38.18 ^b	4.63			257	21.70	2.79		
	사별	94	36.63 ^a	4.79			95	21.72	3.16		
독거여부	독거	83	36.40	4.25	-2.76	.006**	82	22.12	2.71	1.44	.150
	비독거	288	38.00	4.76			288	21.61	2.86		
건강상태	나쁜편	45	36.18 ^a	4.34	3.66	.028*	46	21.80	3.37	.29	.788
	보통	205	37.55 ^{ab}	4.37			204	21.64	2.55		
	좋은편	122	38.33 ^b	5.19			122	21.85	3.07		
경제상태	나쁜편	68	35.81 ^a	4.46	13.04	.000***	68	21.40	2.49	.89	.413
	보통	249	37.62 ^b	4.65			249	21.87	2.92		
	좋은편	54	40.04 ^c	4.10			54	21.54	2.84		

* $p < .05$. ** $p < .01$. *** $p < .001$.

유의미한 자아통합감 수준이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 종교유무에 따른 자아통합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년초월의 차이를 살펴해보았으나 각 변수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생산적 활동이 노년초월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통합감의 매개효과

본 연구는 생산적 활동이 노년초월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통합감이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에 앞서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경제활동여부는 사회참여활동정

도와 자아통합감, 노년초월 변수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참여활동정도는 자아통합감과 노년초월과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아통합감과 노년초월수준 간에도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 검증에 앞서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차한계와 VIF값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는 .595~.931로 0.1이상이고, VIF는 1.074~1.681로 모두 10이하이므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아통합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4단계방법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먼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 다음으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후 마지막으로 첫 번째 단계에서 얻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와 3단계결과를 비교해 값이 감소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일반적 특성과 생산적 활동이 노년초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다중회귀식에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설명력이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노년초월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참여활동수준은 $p < .01$ 수준에서 유의($\beta = .16$)하여

표 3. 생산적 활동이 노년초월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통합감의 매개효과 ($N = 373$)

모형		생산적활동→노년초월			생산적활동→자아통합감			생산적활동, 자아통합감 →노년초월		
		<i>B</i>	β	<i>t</i>	<i>B</i>	β	<i>t</i>	<i>B</i>	β	<i>t</i>
일반적 특성	성별 ¹⁾	-.12	-.02	-.34	-.39	-.04	-.71	-.05	-.01	-.15
	연령	.00	.00	.06	-.00	-.01	-.09	.00	.01	.12
	독거여부 ²⁾	.56	.08	1.51	-1.20	-.11	-2.06*	.78	.12	2.22*
	학력	.11	.06	.82	.34	.10	1.57	.05	.03	.39
	건강상태	-.00	-.00	-.01	.25	.04	.78	-.05	-.01	-.24
	경제상태	.04	.01	.17	1.32	.19	3.45**	-.21	-.05	-.88
생산적 활동	경제활동유무 ³⁾	.41	.07	1.33	-.19	-.02	-.384	.438	.075	1.47
	사회참여	.08	.16	2.99**	.10	.12	2.324*	.064	.126	2.38*
	활동수준									
자아통합감								.19	.31	5.80***
<i>F</i>		2.04*			6.24***			5.71***		
<i>R</i> ²		.04			.12			.13		
<i>adj. R</i> ²		.02			.10			.10		

* $p < .05$. ** $p < .01$. *** $p < .001$.

노년초월에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사회참여활동을 많이 할수록 노년초월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경제활동유무는 노년초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일반적 특성과 생산적 활동이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에서 각 변수들의 설명력은 10%로 나타났다. 개별 회귀계수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경제활동유무는 노년초월과 마찬가지로 자아통합감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참여활동수준의 영향력이 $p < .05$ 수준에서 유의($\beta = .12$)하게 나타나 사회활동참여를 많이 할수록 자아통합감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 특성 중에는 독거여부가 $p < .05$ 수준에서 유의($\beta = -.11$)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상태가 $p < .01$ 수준에서 유의($\beta = .19$)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독거가 아닌 경우 자아통합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 특성과 생산적 활동 및 자아통합감을 모두 포함하여 노년초월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변수들의 설명력은 10.3%로 나타났으며, 자아통합감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beta = .31$)하여 노년초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생산적 활동 중 경제활동유무는 노년초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적 활동 중 사회참여활동수준은 $p < .05$ 수준에서 유의($\beta = .13$)하여 사회참여활동수준은 노년초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를 통제하기 전보다 영향력의 크기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은 자아통합감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노년초월을 증가시키고 있어 자아통합감은 사회활동참여와 노년초월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 특성 중에는 독거($\beta = .12, p < .05$)인 경우 노년초월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중다회귀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생산적 활동 중 특히 사회참여활동은 자아통합감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통합감은 노년초월의 유의한 영향변수로 사회활동참여수준과 노년초월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Sobel test 결과 값은 일반적으로 절대 값이 1.96보다 클 경우 매개효과가 유의하다(Baron & Kenny, 1986). 본 연구의 매개효과검증은 Sobel test 계산기인 'Free Statistics Calculators'를 활용해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노인의 사회참여활동과 노년초월사이에서 자아통합감의 매개효과는 결과 값이 2.151로 절대 값이 1.96보다 크며, 유의확률이 .03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2와 같이 생산적 활동 중 사회참여활동이 노년초월에 미치는 효과는 자아통합감을 통해서도 전달되지만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도 존재하므로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표 4. 자아통합감의 매개효과 검증

변수경로	Z	p
사회참여활동→ 자아통합감→노년초월	2.151	.03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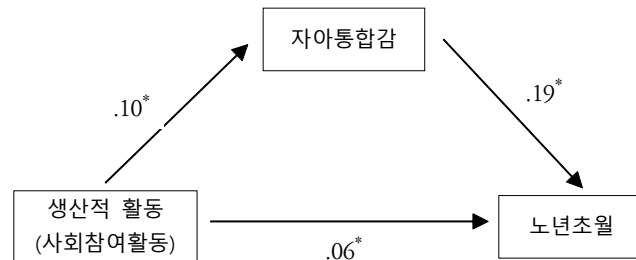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변수들 간의 경로모형

* $p < .05$.

따라서 사회참여활동은 자아통합감을 매개로 하여 노년초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은 자아통합감을 증가시키며, 높은 자아통합감은 노년초월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노인의 생산적 활동 참여가 노년기의 심리적 안녕과 성공적 발달을 반영하는 지표인 자아통합감과 노년초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생산적 활동과 노년초월의 관계에서 자아통합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통합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력, 혼인상태, 독거여부, 건강상태, 경제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학력수준은 전문대졸 이상의 집단이 중학교 졸업이하의 집단보다 자아통합감이 높게 나타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아통합감이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김영신, 편명희, 2016; 정현정, 윤숙희, 2015)

와 일치하였다. 또한 독거여부는 독거가 아닌 경우가 독거인 경우보다 자아통합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동거가족이 있을수록 자아통합감이 높아진다는 김영신과 편명희(201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고독감이 낮을수록 자아통합감이 높아진다는 정현정과 윤숙희(2015)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건강상태는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 나쁜 편 보다 높게 나타나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할수록 자아통합감 수준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들(김고은, 신은주, 2016; 김영신, 편명희, 2016; 김희경, 이현주, 주영주, 박순미, 2009; 노길희, 2012)과 결과가 일치하였다. 경제상태와 관련하여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자아통합감이 높아 선행연구들(김향숙, 한정란, 2016; 최현옥, 2014)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성별, 연령, 종교유무 따라 자아통합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년초월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유무, 신체건강, 경제적 상황인식, 소득 등에 따라 노년초월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선행연구들(김순이, 2015; 김은자 등, 2016;

윤민석, 2012b; 이예진, 2016; 조영주, 2015; Wang et al., 2015)과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한편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독거인 경우가 독거가 아닌 경우보다 노년초월수준이 높아짐이 검증되었다. 이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독거인 경우보다는 노년초월수준이 높다는 김순이(2015)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초월이 삶과 죽음에 관한 하위요인들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독거노인의 경우 배우자의 죽음을 경험한 경우가 많으므로 부정적 삶의 사건이 노년초월을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Read, Braam, Lyrra, & Deeg, 2014)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무배우자의 노년초월수준이 높다는 조영주(2015)의 연구와도 일치되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종교유무에 따라 노년초월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종교가 노년초월과 연관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단순히 종교유무로만 종교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종교에 있어서 영성이나 종교유형 등과 같은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노인의 생산적 활동이 자아통합감과 노년초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본 결과, 생산적 활동 중 경제활동 참여여부는 자아통합감과 노년초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참여활동수준은 자아통합감($\beta = .12, p < .05$)과 노년초월($\beta = .16, p < .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산적 활동 중

경제활동 참여여부는 자아통합감과 노년초월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생산적 활동 중 사회참여활동수준이 높을수록 자아통합감과 노년초월수준이 높아짐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제활동 참여여부 자체가 자아통합감이나 노년초월을 높여주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경제활동 참여여부 자체보다는 참여하는 경제활동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의미 있는 활동으로 인식하는지가 더욱 중요하며 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경제활동을 제외한 자원봉사, 문화, 스포츠, 학습, 친목단체 등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수록 자아통합감과 노년초월이 높아져 노년기의 심리적 안녕감이 촉진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노인의 생산적 활동과 노년초월의 관계에서 자아통합감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지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노인의 생산적 활동은 자아통합감을 매개로 노년초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통합감이 노년초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안정신, 2015; 안정신, 박규리, 2016)의 결과들은 자아통합감이 노년초월을 예측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Sobel test 분석 결과에서도 자아통합감은 사회참여활동수준과 노년초월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이 확인되어 노인의 생산적 활동 중 사회참여활동은 자아통합감을 매개로 하여 노년초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노인의 생산적 활동 중 사회참여활동과 노년초월 간의 관계에서 자아통합감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

하여 노년기의 생산적 활동 및 노년초월과 관련된 이론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진다. 국내에서는 2010년대에 들어서서 노년초월이 소개되고 연구되기 시작한 이후 심리적 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본 연구는 생산적 활동과 노년초월의 관계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Erikson(1985)이 제시한 심리적 발달 과업이자 노년초월의 선행변인인 자아통합감과 노년기의 마지막 단계 발달과업인 노년초월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전에는 노년기의 특성으로 자아통합감이 주로 논의되었으나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노년시기가 연장됨에 따라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노년초월이 본 연구결과를 통해 자아통합감과 연관성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노년기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으로써 그 중요성을 인식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의 생산적 활동참여는 노년기의 심리사회적 발달특성인 자아통합감과 노년초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고, 노년기의 생산적 활동참여가 선행연구들에서 검증한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본 연구를 통해 심리사회적 건강에도 주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으므로 국가 및 지역사회 등 민관의 노인복지정책으로서 생산적 활동에 보다 깊이 있는 연구와 반영이 필요하다. 즉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적 노력뿐 아니라 접근이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노인들의 생산적 활동참여를 위하여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전달체계의 수요자 중심의 홍보와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평생학습관 등 관련 시설들을 확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제도가 발달되지 않았고 노인빈곤율이 높아 빈곤 노인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기회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소득보충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박경하 등, 2013). 여전히 ‘복지’와 ‘노동’의 애매한 정책목표로 인해 일부 시장형 사업은 ‘사회참여’와 ‘복지’의 시각이 아닌 ‘경쟁’과 ‘자립’의 견지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를 통해 노년기의 심리사회적 안녕을 위해서는 경제활동보다는 사회참여 활동이 더욱 중요함이 확인되었고 노년기의 경제활동 참여여부보다는 경제적 상태에 관한 노인의 인식이 더욱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경제적 지원수단으로서의 정책은 공적연금제도의 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며, 노인들을 과도한 노동현장으로 내보내기 보다는 사회활동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노인일자리사업의 목적이 ‘소득창출’ 보다는 ‘사회참여’에 맞추어져야 함을 제언코자한다.

셋째, 노후의 생활만족은 심리·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정장현, 조한익, 2017), 자아통합감과 노년초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윤민석, 2012a), 이는 적절한 사회활동을 유지할 때 얻어지며 노년기에는 새

로운 역할과 새로운 인간관계의 개발이 필요하며 사회적 역할상실을 대체할 사회활동으로 친교활동, 건강증진활동, 학습활동, 자원봉사 활동 등 다양한 사회활동참여가 권장된다. 이러한 활동참여는 은퇴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퇴이전 시기부터 준비되어야 하며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과업들을 중심으로 노후설계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후준비를 위한 교육 또는 노후설계교육이 노년기 이전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관련 기관에서 미래 노인을 위한 노후설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Erikson과 Erikson은 8단계에 접어든 노인은 9단계에 가까이 와 있으며 80, 90대가 되면 점차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이를 적절히 수용하고 극복하며 성공적 9단계 발달특성인 노년초월을 경험한다고 하였다(윤민석, 2012a). 이는 노년초월의 개념이 후기 노인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어 후기 노인의 수가 충분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후 후속연구에서는 후기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노년초월 연구가 이루어질 것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신옥 (2009). 노인의 생산적 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충북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김고은, 신은주 (2016). 노인의 자아통합감에 관한 연구 - 자아실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노인복지연구, 71(3), 109-136.

김동배, 박은영 (2007). 여성노인의 생산적 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일반, 비수급빈곤, 수급빈곤 여성노인 집단 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노인복지연구, 38, 339-358.

김민희, 이주일 (2017). 노년기 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과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삶의 의미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5), 100-113.

김순이 (2015). 자기초월과 고독감이 재가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10), 6679-6687.

김영신, 편명희 (2016). 노인 자원봉사 참여여부가 생성감 및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노년교육연구, 2(2), 39-56.

김은자, 정혜정, 신유순 (2016). 노인의 자기분화와 신체적 건강 및 성인자녀관계가 노년초월에 미치는 영향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4(3), 435-457.

김진욱 (2006). 한국노인의 생산적 활동에 관한 실증연구-1999년과 2004년 생활시간조사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5, 133-158.

김향숙, 한정란 (2016). 노인교육 참여가 생성감과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노년교육연구, 2(2), 21-37.

김희경, 이현주, 주영주, 박순미 (2009). 독거노인의 자아통합감 영향요인. 노인간호학회지, 11(2), 204-215.

- 노길희 (2012). 뉴욕시 거주 한인 노인의 자아통합감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32(1), 67-85.
- 박경하, 남기철, 이소정, 이시균, 이승호, 이현미 (2013).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서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박정호 (2012). 취업고령자의 특성과 생산적 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생산적 활동의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9(4), 59-81.
- 보건복지부. (2016). 2016 보건복지 통계연보, 제62호. 세종: 보건복지부.
- 성혜영, 조희선 (2006). 노년기 생산적 활동과 심리적 안녕.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4(6), 35-45.
- 안정신 (2015). Erikson의 9단계 노년초월척도의 한국판 타당화.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6(1), 51-61.
- 안정신, 박규리 (2016). 남녀노인의 상실경험과 우울이 자아통합감과 초월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7(3), 405-418.
- 윤순덕, 한경혜 (2004). 농촌노인의 생산적 활동과 심리적 복지. *한국노년학*, 24(2), 57-77.
- 윤민석 (2012a). 노화에 대한 재해석: 노년초월 이론과 9단계이론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2(2), 431-446.
- 윤민석 (2012b).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노년초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56, 7-31.
- 이예진 (2016).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도가 노년초월에 미치는 영향 - 인지된 사회적지지와 매개효과검증 -.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희 (2009). 최신 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 이혜자, 전동일 (2011). 농촌·도시지역 거주 노인의 생산적 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1(2), 419-437.
- 정장현, 조한익 (2017).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적응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 *인간발달연구*, 24(1), 105-137.
- 정현정, 윤숙희 (2015). 독거노인의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1(4), 499-508.
- 조영주 (2015). 노인의 영성과 노년초월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수현, 김혜리 (2016). 노년기 자아통합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노년학*, 36(2), 199-214.
- 최현옥 (2014). 관련변인을 중심으로 비교한 자아통합 척도 연구. *한국노년학*, 34(3), 539-553.
- 통계청. (2017). 장래인구추계: 2015~2065. 대전: 통계청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raam, A. W., Bramsen, I., van Tilburg, T. G., vander Ploeg, H. M., & Deeg, D. J. H. (2006). Cosmic transcendence and framework of meaning in life: Patterns among older

- adults in The Netherlands.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61(3), 121-128.
 - Brown, C., & Lowis, M. J. (2003). Psychosocial development in the elderly: An investigation into Erikson's ninth stage. *Journal of aging studies*, 17(4), 415-426.
 - Erikson, E. H. (1982). *The life cycle completed*. New York: W. W. Norton.
 - Erikson, E. H. (1985).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 W. Norton.
 - Miller, M. (1978). Geriatric suicide: the Arizona study. *The Gerontologist*, 18(5), 488-495.
 - Paul, C., Ribeiro, O., & Teixeira, L. (2012). Active ageing: An empirical approach to the WHO model. *Current Gerontology and Geriatrics Research*, 2012, 1-10.
 - Read, S., Braam, A. W., Lyyra, T. M., & Deeg, D. J. (2014). Do negative life events promote gerotranscendence in the second half of life?. *Aging & Mental Health*, 18(1), 117-124.
 - Tornstam, L. (1994). Gerotranscendence: A theoretical and empirical exploration. In L. E. Thomas & S. A. Eisenhandler (Eds.), *Aging and the religious dimension* (pp. 203-225). Westport, CT: Greenwood Publishing Group.
 - Wadensten, B. (2005). Introducing older people to the theory of gerotranscendenc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52(4), 381-388.
 - Wang, K., Duan G. X., Jia, H. L., Xu, E. S., Chen, X. M., & Xie, H. H. (2015) The level and influencing factors of gerotranscendence in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In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ciences June*, 2(2), 123-127.
- 1 차원고접수 : 2018. 01. 23.
수정원고접수 : 2018. 02. 12.
최종게재결정 : 2018. 02. 22

The Effects of Elderly Productive Activities on Gerotranscendence: The Mediation Effect of Ego Integrity

Kim, Hyun-Sook

Hwang, Hye Won

Dept. of Social Welfare, Cheongj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productive activities of the elderly on ego integrity and gerotranscendence, and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s of ego integrity. For this purpose,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elderly people over 60 years old residing in Cheongju, Chungcheongbuk - do province in South Korea. The study analyzed 373 cases (132 male, 241 female). To examine the effects of productive activities on gerotranscendenc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and the Sobel test was used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s of ego integr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 higher educational level resulted in a better health status, and a higher economic status resulted in higher ego integrity. Second, the existence of economic activity among the elderly's productive activitie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gerotranscendence and ego integrity. However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had positive effects on ego integrity and gerotranscendence. Third, ego integrity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and the gerotranscend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re is a link between ego integrity and gerotranscendence, and the importance of gerotranscendence is recognized as a new concept to explain the old age through the result of this study. In addition, we suggested that the role of social welfare practice field and policy should center on the developmental tasks for desirable aging.

Keywords: productive activity, ego integrity, gerotranscendence, economic activity, social participation activity